

사업체 매매

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949) 501-8555 Leah Ivy Chang

부동산 · 경제

BUSINESS · REAL ESTATE

전 당 포

LC3019-0990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트위터 “영원히 재택근무 가능”

미국 소셜 미디어 업체 트위터(Twitter)가 자사 직원들 중 희망자에 한해 ‘무기한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올 9월까지 지는 오프라인 사무실을 열 수 없으며, 전국적인 자택격리령이 끝난다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은 직원들은 무기한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4일 ‘뉴스핍’에 따르면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전체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재택 근무를 실행한 몇 달 동안 업무 효율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며 “만약 우리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가 선택한 ‘탈사무실’은 앞으로 많은 스타트업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관측이다. 실제로 트위터 외에도 많은 미국의 유명 IT기업들도 재택근무를 연장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과 애플은 재택근무 희망자에 한해 올 연말까지, 아마존은 올 10월까지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재택근무 확산세는 단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화

상 회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협업이 가능함을 알게 됐고 또, 그동안 호화 사옥 경쟁을 벌이던 기업들이 실용적이며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비용 절감이나 상시방역체계 구축 등을 감안해 코로나19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선택했다는 얘기도 있다.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로 업무 효과를 극대화 시킨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근무시간 내에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 관측도 있었지만,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2~3시간 더 일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반면, 재택근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온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택근무는 집단 차원의 동기부여 및 창의성 향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컴퓨터 기업 IBM은 1993년 원격근무를 도입했지만, 지난 2017년 결국 모든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낮은 수준의 업무생산성이 이유였다. 사무실 복귀가 싫다면 아예 회사를 떠나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이후 역시 2013년 재택근무를 폐지했으며,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비슷한 전철을 밟은 바 있다.

월가, 주식에서 채권으로 갈아탄다

최근 미국 주식펀드의 자금 유출과 채권펀드의 매수 열기가 두드러진다. 연방준비제도(Fed)가 회사채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매입에 돌입하자 월가의 개미들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2일 시장조사 업체 EPFR 글로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한 주 사이 주식펀드에서 93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반면 고수익, 고위험 채권 펀드인 하이일드본드 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6주 사이 320억 달러에 달했다. 주식과 채권 상품의 상반되는 움직임은 연준의 회사채 매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연준은 이날 회사채 매입에 본격 뛰어들었다.

주식과 채권 펀드의 상반되는 유동성 흐름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QE)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

되는 채권이 특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충격을 앞세워 배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했고, 이 때문에 회사채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다. 자산운용사 까미낙의 케빈 토렛 전략가는 “일부 회사채는 주식의 장기 수익률에 상응하는 금리를 제공한다.”며 “상장 기업들의 배당 추소가 시중 자금을 신용시장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시장 왜곡을 경고하고 있다. 연준의 전례 없는 회사채와 ETF 매입이 채권 발행 및 유통시장의 버블을 일으킬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아울러 기업 펀더멘털과 채권 수익률의 괴리가 위험 수위로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이달 초 화상으로 이뤄진 주주총회에서 연준의 회사채 매입이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월 “마이너스 금리 고려 않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마이너스 기준금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표명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주최 화상 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기하강 위험이 있다.”면서 “깊고 긴 충격은 경제 생산성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파산이 현실화한다면 향후 수년간 경제에 부담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도구를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파월 의장은 “연소득 4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 가계의 약 40%가 3월에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이들 가계에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준다. 추가 재정지출은 비용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다.”면서 연방정부 재정지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추가 재정정책이 절실하다.”도 말했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선 “연준의 시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그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공격적인 양적완화(QE) 정책을 개시하면서 금융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된 상황에서 굳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처방을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내년에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앞서 미국 국제 선물시장에서 일부 기간 물이 마이너스 금리 기대감을 반영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트윗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혜택을 보는 상황에서 미국도 선물(gift)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시장의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

Commercial & Residential 부동산 투자 및 1031 Exchange 도와드립니다.

ONE GROUP REALTY
www.OneGroupRealty.com

찰스 SELL OC HOMES

상담문의 찰스 리
Charles Lee/Broker
Lic #01361071, 01861239
714.614.2426
charleslee@onegrouprealty.com

독점 Home for Sale / Lease 독점

Bellflower - 독점 TownHome

SOLD

3 Beds + 3.5 Baths
1,300 sq.ft. (Estimate)
2 CAR attached Garage
END UNIT
햇빛이 절드는 남향집
Cerritos Shopping Mall 근방

\$539,000

Fullerton 단층주택

SOLD

3일만에
"Multiple CASH OFFERS"
받았습니다.

4 Bed + 2 Baths, 2,190 sq.ft.
10,600 sq.ft. Lot 3 CAR GARAGE
*좋은 학교 (Sunny Hill High & Parks Jr. High)
*Laguna Lake & Parks 있는 조용한 동네
*현재 매물 없나온집 (Pocket Listing)
*Upgrade Driveway, Laminated Floor
Dual Paned Window, View

\$875,000

For Sale or For Lease

LA & OC 창고 Available

2,000 sq.ft. ~ 15,000 sq.ft.
\$0.89 ~ \$1.25 per sq.ft.
Or
\$820,000 ~ \$3,500,000

LEASE OR SALE 담당 Broker
찰리에게 문의주세요

독점 비즈니스 for Sale !!!

DOWNTOWN LA - 제과공장 & WHOLESALE

19 종류 Bakery Manufacture 입니다
* SHORT BUSINESS HRS (5 AM ~ 3 PM) Monday ~ Friday
SATURDAY - Closed / SUNDAY (Delivery Only)
* CURRENT RENT: \$4300 Gross Lease (NO CAM Charge)
* MANUFACTURER BUILDING SIZE: 6,924 SQ.FT.
FREE STANDING BUILDING
* GROSS SALE: \$65,000
* NET PROFIT: \$17,000 ~ \$20,000

\$658,000

North OC 식당

Store size: 1,500 sq.ft. (Fullerton Down Town)
* Asian & American (Mid - High Income Area)
* Beer & Wine Lic Available • High Foot Traffic
* 현재 저녁에만 OPEN 합니다. (NO LUNCH)
* Gross Sale: Average \$50,000
* Rent: \$7,000

\$315,000

마켓에 나오지 않은 집 삽니다